

Phil의 일기

나는 MCC 후원자의 후의에 힘입어 퍼스트 스텝스를 위해 구매한 메주콩을 확인하기 위해 MCC를 대표하여 북한에 갔다. 북한에 대해 읽고 들은 것은 실지로 방문해 경험한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고정관념과 편견때문에 때론 세상 어디에서든 사람은 사람일 뿐임을 간과하기 쉽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건강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것들을 똑같이 필요로 한다.

퍼스트 스텝스가 학교와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음은 분명했다. 어린이들이 콩우유를 즐겨 마시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다.

MCC는 하나님의 공동체 차원에서 연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퍼스트 스텝스와 협력하여 메주콩을 공급한 것에 긍지를 느낀다. 수잔은 한국어도 능통하고 문화를 이해하기에 이 사역을 이끄는 데 적합한 사람이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열정은 사람들을 감화시킨다.



Photo: MCC/Brian Atkinson

퍼스트 스텝스는 북한과 캐나다 정부 관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북한 지역 사회 및 협력 파트너들과의 유대관계도 탄탄하다. 여러 곳에서 만난 협력 파트너들은 퍼스트 스텝스의 도움에 감사하고 있었다.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보건성과 스프링클스 효용성 연구에 관해 협의하는 것도 보았다. 스프링클스를 복용해 건강이 좋아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몇 명 직접 만나서 기뻐했다.

고아원과 학교를 방문해 영양 실조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고, 퍼스트 스텝스 사역이 지속되고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할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원산 콩우유 공장 공장장 은퇴

수잔 리치, 안드레아 로즈 이사가 처음 윤상호 공장장을 만났을 때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FS는 2003년 당시 원산의 어린이들을 도우려 콩우유 생산 설비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공장장으로 있는 작업장에서는 석탄을 연료로 쓰는 노후한 기계가 석탄도, 가공할 식품도 없어 5년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그는 부끄러워했고 자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바이타고트를 들여와 그의 공장을 다시 가동하여 지역사회에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다시 공급하려는 계획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콩우유 공장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새 바이타고트 4대가 거의 하루종일 가동되어 매일 원산 일대의 2만명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공급했습니다. 그 이후 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의 머리는 점점 더 곧게 들렸고 미소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공장장님의 건강이 지난해 악화되어 은퇴했다는 소식을 지난 방문 때 들었습니다.

콩우유 기계와 어린이 이야기를 늘 하던 공장장님과 그동안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고 FS는 그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